

는 수출하여 외화를 획득하게 한다는 목적하에 한·미합작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는 국제 정치적중요성도 내포하고 있겠지만 양계업자를 위하여서나 사료업자를 위하여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다고 기술지도를 얼마나 얻은것이 있으며 우리가 알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는것을 꽤히 알으켜 주었는가? 국내업자가 생산하는 초생추의 질과 값도 같으며 사료는 어느면에서는 국내기술에 의하여 생산된것보다 못하며 값은 비싸다는 평도 나온다 그렇다고 현재 계란과 계육을 국남 또는 외국으로 수출의 길을 열어 주고 있는가?

사료수급에 차질이 있을때 서로 협조가 잘 되었는가? 오직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혈안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들은 기술협력과 상표의 대가로 판매액의 3%를 가져가고 이익의 분담도 가져 가게 된다. 우리는 사대사상(事大思想)을 하루 속히 버려야 되겠다. 외국제품이라면 우선 믿고 좋아하는 생각을 버리고 민족적 이성을 되찾아 같은 질, 같은 값이면, 국내업자의

것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 도리와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설사 국내업자의 것이 다소 비싸다 하더라도 이용 개선하는 것이 의리인줄 안다. 그렇다고 외국인의 것을 무조건 배타(排他)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대사상을 버리고 민족의식을 높이 진작시키자는 것이다. 정부도 이들의 업체에 대하여 시초의 사업승인조건대로 수행하고 있나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와 책임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유치승인하여서는 아니될줄 안다.

(九) 양계진흥법 제정을 촉구함

양계업의 진실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계진흥법의 제정을 바란다. 즉 종계의 자질개량(資質改良) 방역대책과, 위생관리, 사료대책, 유통개선, 공제제도, 가격안정기금, 능력검정, 기술지도, 도계장규정, 세탄선별규정, 단지 조성촉진, 양계 조합법 등 양계업을 진흥시키는 규제와 규정을 법적으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바라는 바이다.



우리가 바라는 양계정책

유 활

경기 부회장 사장

양계업의 발전을 바라볼 때, 그 발전상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그 발전을 훨씬 능가하였으며 본인은 그 발전을 평가할 때 너무 급속히 발전하여 오히려 퇴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마저 생기나, 이는 본인이 걱정하기 이전에 정책당국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여기 바라는 것은 보다 잘 되고, 또 굳건한 바탕을 가지는 양계발전을 바라는 뜻에서 몇 마디 피력해볼까 한다.

우리가 양계업의 발전을 돌이켜 볼 때 1964 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진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는 사료 및 종계문제의 원만한 해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여기서 우리양계업의 가장 문제점으로 등장되고 있는 사료, 품종, 유통문제 등

을 들어 잘되는 양계업의 바람을 제 나름대로 적어보고자 한다.

1. 사료 문제

양계업의 발전이 사료의 원활한 공급과 동시에 발전되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사료의 원활한 공급이 양계업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안다.

현재 정책당국의 축산업의 모든 지원조치에 대하여 그 발전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으나 여기에 몇가지 우려되는 바 있지만 그것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① 사료의 적기도입 문제

매년 사료도입에 있어서 그 소요량이 닭 수와

비례하여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입의 시기적 격차가 일시적으로 사료의 파동문제를 가져온다면 이는 그 운영의 묘를 찌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일정 수량이 일년을 통하여 분산되어 적기에 도입될 때 도입사료의 이용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즉 사료 수요량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추정으로 그 공급대책을 확립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정책의 잘못으로 68년도 5~6월 사이에 사료공장에서의 옥수수 품질로 갑자기 국내산 옥수수로 대체한 결과 배합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닭의 사양에 지장을 가져왔던 점은 지적받을 만한 일이다. 물론 도입 사료의 기술적 내지는 경영적 문제에 대하여서는 잘 모르겠으나 양계업자로서 옥수수 도입일자는 아직 멀었고 사료공장의 옥수수 재고량은 바닥이 나고, 사료를 많이 확보할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할 때가 종종 있음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② 국내산 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육성책

현재 양계사료의 60~70%가 도입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또 현재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국산 옥수수 어분 등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 질적인 또는 가격적인 면을 볼 때 도저히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양계는 사료의 수입이 중단될과 동시에 끝난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까닭에 정책당국에서는 양계업은 사료도입문제와 직결된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국내 원료의 생산문제를 해결해주어야 될 줄로 믿는다, 국내산 옥수수의 10% 배당(도입 옥수수 량의) 방법 등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이렇게 하므로써 옥수수 생산도 장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사료에 의존하여 양계를 하는 것보다 마음 편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값 비싼 옥수수를 사용하여 사료 가격이 인상된 사실도 알며 이로 인하여 양계업자의 부담이 그만큼 커진 것도 알고 있으나, 양계업의 먼 장래를 생각할때 보다 더 국내산 사료원료의 이용도를 높이므로써 자급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를 거듭하고 우

리들 주위에서 나오는 많은 부산물들의 사료이용의 가치를 검토해야 될 것이다.

③ 조절용 사료의 확보로 사료가격의 안정화

사료도입의 지연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변동을 감안하여 정책당국에서는 조절사료를 확보가 보다더 안정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책당국의 소맥피 공급의 일원화로 중간상인의 이익을 배제한 점은 칭찬할만 하나, 69년도 4~6월까지의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절대량 부족으로 품귀현상을 나타내어 암시장을 형성하였으며 69년 8월부터 현재까지는 생산량의 과잉으로 인한 여파로 당국의 고시가를 하회하는 등 정책을 위협하는 시장조성등은 안정된 사료가격정책에서 벗어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하며, 상승하는 시세를 조절해야 하지만, 하락하는 시세도 막는 것이 안정된 사료정책이 아닐까 한다. 사료시세의 하락은 양계의 붐을 일으켜 불경기의 사이클을 빨리 오게 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품종 문제

모든 축산의 성공이 사양과 품종 및 경영에 있듯이 품종문제 또한 양계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주요한 요인이라 생각되어 여기에 몇가지 문제를 제외해 본다.

① 초생추 도입문제

도입 초생추가 양계업의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크며 양계업자의 이득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거 몇 년간은 그런데로 그 결과가 좋았으나 도입계의 수입 개방으로 일부 몰지각한 종계업자의 외국닭이던 다 좋다는 식의 도입 방법과 국내 양계업자의 무조건 외국종 숭상주의를 불러일으켜 그 피해 또한 공헌에 못지 않으니 만큼 양계업자의 개인적 손해를 떠나서 국가적인 손실도 큰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외국계는 다 좋다는 식의 도입방법 이전에 우리나라의 기후풍토 및 사료의 사양적 조건에 알맞는 품종을 택하여 도입하게 함으로써 보다 큰 이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한다.

한국 종축개량 협회, 한국 가금협회, 축산 사

● 우리가 바라는 양계정책

협장을 통하여 능력시험을 거쳐서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품종에 한하여 도입되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현재 일부 양계업자는 외국닭은 과거 우리가 국산품이 나쁠 때 외제를 좋아했던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료 및 사양의 개선없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아는 현상 등은 극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하여 이는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선택의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한다.

② 국내산 종계의 개량문제

지금은 한국 종축개발 협회로 넘어간 사업이지만 과거 수년간 한국 가금협회에서 종계의 능력검정 사업을 부화장의 출품에 의하여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였으며 거기서 나온 성적으로는 국내산 개량종이 수익면이나 건강면에서 1,2등을 차지한 점등을 감안하여 국내 종계개량에도 많은 지원을 함으로서 도입계에만 의존하던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 품종개량에 노력해야 되겠다. 소위 부모계(PS)만 도입하여 1년만 이용하고 다시 도입해야 하는 식의 외화낭비의 방법보다 어떻게 하면 그 우수한 유전형질을 자손으로 하여금 1년 더 발휘하게 하는 따위의 기술적인 방법도 한번 연구해봄직한 일이다. 물론, 성적이 못할수도 있겠으나 외화낭비를 감안할 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으로 안다.

③ 부화장의 허가 및 정비문제

현재까지 부화장 설립은 등록제도로 되어 있어 부화가 수지 맞는다 하면 우후죽순처럼 부화장이 생기고, 암탉군에다 수탉을 넣으면 종란이 생산되어 거기서 나오는 병아리가 과연 양계업자에 도움이 되는 병아리가 될는지 의문이다.

사료공장은 허가제도로 되어 있는데 사료에 못지않게 중요한 초생추 생산공장은 왜 등록제로 되어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며, 사료는 한번 잘못으로 1~2개월 이내에 시정이 되나 병아리는 한번 잘못 사면 눈 몇 마지기 없애는 적자경영도 다반사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부화업체의 정비도 한번 신경을 써봄직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3) 계란, 계육의 유통문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이 또한 양계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며 여기에 몇가지 기술하고자 하는 점은 생산물의 유통이나 가격안정이 곧 양계업의 발전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① 계란, 계육의 소비증대

단백질 급원으로 동물성 단백질중에서는 밀치 다음으로 닭고기가 제일 쌀 것이다. 현재 당국의 소비정책의 지원으로 계란, 계육의 한국군 군납도 활발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반가운 일이며 보다 더 박차를 가하여 많은 소비책을 강구하여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정부당국은 보리쌀 혼식만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밀기울이 섞인 옥수수밥도 권장하여 국내 소비 증대가 곧 양계업의 발전을 이끌어 주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물론, 현재 유엔군 군납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의 최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더욱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되겠다.

② 계란, 계육가격의 안정화

과거에는 사료가격이 양계파동을 일으켰으나 근대에는 생산물의 가격이 양계불경기와 업자들에게 불안운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몇 개월 전에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으며, 현재 처럼 높은 가격의 계란값이 다음에는 비례적으로 낮은 값을 만들어 파동을 초래하는 점은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1969년도 봄의 초생추 시장이 분명히 현재의 높은 계란값 형성을 암시했으며 이런 변동이 또 파동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생산물의 안정정책에 더욱 연구를 해줄것을 강조하고 싶다.

4) 기타의 문제점

① 현 정부가 제창하는 산, 학 일체의 협조가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것이 과연 양계업자가 원하는 방향인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국립 종축장의 출발이 크게 기대된다.

② 양계업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등은 이미 필요하지 않으며 간접적인 자금지원 즉, 유통과정

의 개선, 사료공장 지원 등이 양계발전의 안전성을 가져오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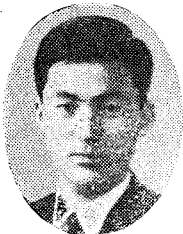
③ 축산협동 조합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여 생산물의 유통과정의 개선점을 연구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여 양계업자들로 하여금 안정된 양계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익이 양계업자들에게 환원되게 하는 방법 등도 바람직한 일이다.

④ 모든 축산의 연구 및 지도 기구의 세분화를 이룩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식을 불러 일으켜 협업정신을 기르게 함도 먼 장래를 위하여서는 필요한 일이며, 이와같은 여러가지 바람에 대하여 애로가 뒤따르고 있겠으나, 세밀하게 연구 검토하여 나간다면 불가능하다고 단할 수가 없어 제 나름대로 피력하여 보았다.

캠 퍼 스 뉴 스

◇ 진주농과 대학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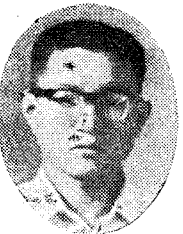
투철한 조국애를 바탕으로한 농업생산 학문의 창조적 능력을 지닌 근대화에 이바지할 선량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진주농대는 진주시 남강변 칠암빌의 1만6천평의 부지위에 50여동의 건물로서 자리잡고 있다. 1952년 3월 1일 설립된 본대학 축산과는 학생



원 120명에 교수 12명으로 장관형(축산 제조학) 강대진(가축육종학) 김병호(양봉학) 윤창현(가축 번식학) 강희신(낙농학) 고영두(사료학) 박충생(번식 육종학) 박종형 송

◇ 전북 대학교편 ◇

축산학과 수의학을 함께 공부할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전북대 농대 수의 축산학과는 80여명의 학생이 해부실, 병리실과 가공실 및 10,000여평의 부속목장에서 충분한 실습과 이론을 공부하고 있으며 축산 담당 교수는 이주목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신다.



<사진은 전북대 주재원 수의축산과3 김현난>

◇ 충남 대학교편 ◇

국립 성환중축장 유성가축시험장, 대천중축장, 천안의 남양분유등 도내에 어느곳 보다 많은 축산 실습장을 가지고 있어서 충분한 실습을 할수 있는 좋은 조건의 충남대 축산학과는 김영목(가축 번식) 김종우(낙농학) 권순기(가축사양) 권석기(번식학)정영채(해부학) 김교준(가축 질병학) 이인호(축산경영학) 김관영(가축 육종학) 이규승등 10명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15정보의 넓은 부속목장에서 충분한 실습을 겸한 축산학을 공부중이다



<사진은 충남대 주재원 축3 이근순>

◇ 전남 대학교편

1969년도에 신설된 전남대 농대 축산학과는 햇병아리의 단점도 있겠으나 장점을 모두 갖춘 발달한 35명의 신입생들이 마치 전남대를 뒤 흔들듯한 기세로 교내의 모든 부문에서 맹 활약을 하고 있다. 교내에서 지난 1학기 총성적은 과평균 제1위로서 교수님들은 물론 타 과의 학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사료포우사, 돈사, 계사의 시설을 갖춘 농장에서 아직 일학년이라 축산의 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백남현, 박종만, 김용식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더욱 건실한 축산인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본사 주재원 김용달>